

한정식·회춘탕 브랜드화 ... '맛 1번지 강진' 만든다

스토리텔링 메뉴 발굴 등 대표음식 육성 지역축제 연계 음식체험 여행상품 보급

'남도 답사 1번지'로 불리는 강진군이 '맛의 1번지'를 선언했다. 강진군은 최근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맛의 1번지' 선포식 행사를 갖고 강진 음식산업 육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사진> 군은 '맛의 1번지' 선포를 계기로 음식 맛의 핵심인 '밥맛 향상 프로젝트'를 비롯해 ▲최고의 맛과 친절서비스 ▲지역축제와 연계한 음식관광객 유치 ▲강진 스토리가 있는 특화 메뉴 발굴 등 맛과 서비스를 전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음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주요 시책으로 ▲강진 대표음식 육성 ▲'맛의 1번지' 음식산업 활성화 ▲'맛의 1번지' 전략적 홍보 등 3가지 중점분야에 10가지 핵심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핵심과제로는 강진 대표음식을 육성하기 위해 '강진 한정식' 전국화사업과 '강진 한정식' 스토리텔링 메뉴 개발사업을 펼친다. 오는 17일 개막하는 전라병영성 축제에서는 지역스토토리가 담긴 '조선병사 밥상'을 선보인다.



또 강진이 시(詩)문학의 고장인 특성을 한정식에 접목해 '시화(詩畵)'가 있는 강진 한정식 명품업소 사업을 진행한다. 군은 한정식과 함께 닭이나 오리, 문어·전복·황칠나무를 넣어 만드는 '회춘탕'도 강진의 대표음식으로 브

랜드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진 회춘탕'을 증명표장 등록 출원하고, 전문식당 총 10개소를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음식 맛의 가장 핵심인 밥맛을 올리는 위해 맞춤형 밥짓기 컨설팅 등 '음식 맛 업그레이드' 시범



함평생태공원에 활짝 핀 수선화
지난 1일 함평군 대동면 함평 자연생태공원을 찾은 상춘객들이 활짝 핀 수선화를 감상하고 있다.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인 수선화의 꽃말은 '자기애(自己愛)'이다. <함평군 제공>



영광농협(조합장 박준화) 관계자와 농업인들이 최근 영광읍 신하리에서 영광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준공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영광농협, 농산물유통센터 문 열어

최신 설비를 갖춘 영광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이하 산지유통센터)가 최근 개장했다. 영광농협(조합장 박준화)은 최근 영광읍 신하리에서 산지유통센터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영광농협은 지난 2009년 고춧가루 가공공장 착공을 시작으로 5년간의 공사 끝에 부지면적 2만 9649㎡에 건축면적 7891㎡ 규모의 산지유통센터를 준공했다. 총사업비는 국비 24억원과 도비 6억원, 군비 19억원, 원전사업비 10억원, 자부담 72억원 등 모두 131억원이 투입됐다. 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을 집화에서부터 선별, 저장, 출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복합 유통시설로, 농산물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과 GAP(농산물 우수관리인증) 기준에 맞는 현대화된 가공공장과 각종 농산물을 상품화할 수 있는 자동선별 시스템, 저온저장 시설을 갖췄다. 특히 농산물 출하와 우선시 운송차량 상·하차가 원활하도록 설계돼 작업의 편의성이 증대됐다. 산지유통센터는 고추류와 양파, 고구마, 대파, 잡곡류를 주로 취급하면서 연간 35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산지유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모두 '해뜨기'라는 고유 브랜드로 출하하게 된다. 박준화 조합장은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맞서 고품질 중심의 생산기반과 유통사업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산지유통센터 준공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농협은 산지유통센터에서 준공 기념행사에 이어 9년 만에 전 조합원 가족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영농회별 민속경기 우승은 묘량면 영농회가, 준우승은 대마면 영농회가 차지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기자 노트

해조류박람회 주제관 야간조명 아쉽다

"아름다움을 연출해야 할 야간 경관 조명이 군데군데 켜져 있는 작은 전등불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요?" "2014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4월 11~5월 11일) 메인 전시장이 주제관 유리타워의 야간 경관 조명에 대한 군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완도군은 건축비 68억원과 전시연출비 17억원 등 총 85억원을 들여 높이 30여m 크기의 원형 주제관을 건립했다. 이곳에는 야간 불거리를 제공해 지역의 관광명소이자 랜드마크로 거듭나게 할 목적으로 조각유리로 만든 중심부 유리타워에 야간 경관조명 시설이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야간에 주제관 경관 조명을 본 군민들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명물로서 자태를 뽐내는 주제관 야간 경관 조명을 기대했는데 이에 못 미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군민

들은 삼원색(빨강·초록·파랑)으로 조명한다고 하지만 전구색깔이 투명하지 못하고, 전기 불빛이 너무 작아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더욱이 주제관은 박람회 기간 동안만 사용되는 일회성 건축물이 아니라 박람회 끝난 후에도 계속 운영돼 관광객들을 맞게 된다. 그래서 주제관 몸통이나 상부에 박람회 마스코트인 해조와 미초를 연출했으면 주제관을 더욱 빛나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이제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 개막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완도 공무원들은 물론 군민, 향우회원 모두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올인'했다. 박람회 랜드마크인 주제관이 낮이나, 밤이나 '관광 완도'의 명물이 아니라 지역관광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군민들은 바라고 있다. /완도=ejchung@



정은조
서부취재본부장

해남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

14억 들여 지상 2층 규모 인터넷실·북카페 등 갖춰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최근 문을 열었다. 해남군은 최근 황산면 호동리에서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2012년부터 총사업비 13억9700만원을 투입해 지상 2층(659.26㎡) 규모의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추진해 완공했다. 1층은 인터넷실과 북카페, 댄스연습실, 노래 악기실, 체력 단련실이 들어섰으며, 2층에는 150명이 수용 가능한 다목적실과 동아리방이 설치됐다. 시설은 (사)청소년 공통왕국(대표자 한동철)에서 위탁받아 오는 2016년 3월까지 2년간 운영한다. 황산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됨에 따라 그동안 해남읍에 문화

시설이 집중돼 소외됐던 황산 인근 지역 청소년들에게 유용한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 청소년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철환 군수는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단순히 놀이시설만을 갖춘 공간이 아니라 지역 청소년들이 보다 넓은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동시에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내 청소년 수련시설은 해남 청소년수련원을 비롯해 해남 유스호텔, 우수영 유스호텔,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총 4개소가 자리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www.guemyong.co.kr

충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바닥재

InstaLay®

충간소음 전용 바닥재

이웃 갈등 원인 해결! 충간소음 방지 바닥재

오리지널 영국 제품 인스타레이

뛰어난 열전도성,충간 중량 충격음 방지,다양한 바닥재 연출
알맞은 쿠션기능으로 피로방지 및 내구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개념의 신기술 - 바닥재 시스템

주객시공기준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수인한도기준

주간 40dB이하
야간 35dB이하

강화마루

온돌마루

모노룸

데코타일 직사각형

데코타일 정사각형

(주)금융건설 InstaLay®

전국 시,군,구지역 대리점 모집

문의전화 062-575-9082